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 계성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박·금·희

〈계성초등학교 사서〉

1. 서 론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을 많이 읽어 마음을 살찌우자는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오로지 ‘책’ 읽기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독서를 즐거운 경험으로 여기고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활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이 가능한 책 읽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은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흔히 독서교육이란 이런저런 책을 읽고 독후감상문을 쓰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국어과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독후감을 몇 편이나 썼는지 등의 실적위주의 것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서교육이란 다양한 체험과 지식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학습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책만을 고집하는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매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대개 학교 전체적인 차원, 교사 개인의 관심분야의 차원, 특별활동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장이 독서교육에 대해 높은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독서교육이 실시되고, 교사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로 실시된다. 그러나 독서교육에 있어서 아무리 열성적인 교사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외의 업무로 여겨져 부담스러워지므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경우란 흔치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일반교사와 협력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서교육에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특별활동의 한 부서로 독서반이나 도서반, 문예반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과거의 정형화된 방법을 그냥 따르고 있을 뿐 학생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학교현장의 독서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이나 몇몇 어린이 대상 도서관 등에서 동화구연대회, 음악감상, 좋은 비디오 보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학교만이 관례화된 형식으로 가을이면 책읽기를 권장하고 구태의연한 독후감상문이나 글짓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 세계를 무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독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계획은 물론 실제로 활동을 지도하거나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독서활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년별 수준을 감안하여 다양한 매체와 아이디어를 활용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당한 시기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의도와 학교상황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주제 중심 프로그램, 각 교과과정 중심 프

로그램, 저자 중심 프로그램, 지명이나 여행 중심 프로그램, 학교행사 중심 프로그램 등 가지각색의 이름으로 만들 수 있다. 즉 독서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도원리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설계와 진행이 달라지며 사서교사가 일관성 있는 지도원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인 독서교육은 가능하다.

2.1 특정 주제 중심 프로그램

사서교사가 특정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팀을 이루거나 개별적으로 독서활동을 한다. 또는 몇 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차별’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 팀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고, 또는 ‘성차별, 여성, 남성, 각국의 성차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서활동을 할 수 있다.

2.2 각 교과과정 중심 프로그램(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의 경우)

교과과정은 과목마다 그 목표가 다르며 학년에 따라서 학습심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현상이나 역사적 사실 등과 관련된 독서활동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6학년 1학기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단원

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고 전시상황을 살필 수도 있고, 어머님에 대한 효성을 이끌어 내어 토론할 수도 있으며, 홍선대원군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독서활동을 통해 개항세력과 홍선대원군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단원과 관련된 내용을 TV에서 방영된 사극이나 비디오 자료를 보고 토론을 하여 독서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2.3 저자 중심 프로그램

특정한 저자를 정해 놓고 그 저자와 관련된 저작물이나 자료를 읽거나 보고 작품에 대한 평을 해도 좋고 저자에 대한 평을 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어떤 저자의 작품이 책과 영화 또는 TV 드라마로 제작되었을 경우 한 작품이 각 장르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토론한다. 이것은 교과과정과 연관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독서활동 자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로 6학년 1학기 국어에서 이문열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을 책으로 또는 영화로 읽고 본 후에 장르의 특성을 감안한 독서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2.4 지명이나 여행 중심 프로그램

4월이나 9월이면 초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나고 대개 여행을 다녀온 후에 기행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녀오기 전에 여행할 곳에 관한 책이나 비디오, 화보, 사진 자료를 가지고 독서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여행은 한층 더 심화된 여행이 될 수 있다.

2.5 학교 행사 중심 프로그램

학교행사와 관련된 독서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관된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행사에 따라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계획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일선 학교현장에서 부담없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행사를 통합적으로 살피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행사와 관련된 '98학년도 독서교육 프로그램 계획안이다. 대상은 4, 5, 6학년이며 1주일에 1시간이 배당되어 있는 특별활동반 프로그램이다.

3. 행사 중심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행사 중심 독서교육 프로그램중에서 '97학년도 계성초등학교에서 도서실 주간예 학년별로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계성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도서관 이용 방법을 지도하고, 독서를 통하여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매년 도서실 주간을 마련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능력향상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각 학년별로 각기 다른 수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어린이들 스스로 책이나 비디오, 음악 등을 선택하여 읽고, 보고, 느끼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표. '98학년도 독서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월	학교행사(어린이와 관련하여)	독서활동
3	입학식 전교 및 학급임원 선거	자기소개서 쓰기,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 선거문 쓰기
4	5학년 고적답사(부여권) 6학년 고적답사(경주권) 과학의 달 기념 독후감 쓰기 및 상상화 그리기 대회, 과학상자 조립대회	여행관련 사진 스크랩북 만들기, 기행문 쓰기, 과학자 사진 만들기, 퍼즐 만들기, 과학퀴즈 대회
5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 부모님과 선생님께 편지쓰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어린이날 관련 책 찾아 읽기,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 카드 및 꽃 만들기 (종이접기 및 만들기 관련 자료 준비), 서명으로 감사표어 만들기
6	1학기말 학력평가 6.25사변일	6.25와 관련된 책, 영화, 비디오 보고 이야기 하기, 책 내용을 그림이나 공작으로 만들기 (팀을 만들어서 협동작품으로 만들기)
7	여름학교 참가, 여름 방학식	방학중 독서 계획표 만들기, 1학기 동안의 독서활동 감상 이야기 하기
8	개학식 전교 및 학급 임원선거	방학중 독서 계획표 소개하기, 방학중 독서활동 경험 발표하기
9	개교기념 미사 도서실 주간 (9월 2째주)◆◆	종교 관련 책 읽기, 우리학교 역사신문 만들기, 마음에 드는 어휘 모으기 도서실 주간에 학년별 프로그램 실시 ◆◆
10	가을 대운동회, 한글날 기념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전교생 현장학습, 불조심 관련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스포츠와 관련된 책이나 TV프로그램 보고 이야기 하기, 새종대왕이나 한글날 관련 파일 만들기, 역할놀이 또는 모의 인터뷰, 표지 만들기 및 삽화 그리기
11	청소년단 야영, 영어동화 구연대회	보이스카우트 및 걸스카우트 정신이 담긴 책 찾아 읽기, 친구에서 내가 원하는 책 소개하기, 독서신문 만들기, 동화구연 글쓰기
12	논설문 쓰기 대회, 특정음악 발표회, 방학식	신문 사설 읽고 토론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비디오, 영화 소개하기, 음악감상 관련 책 읽기(곡해석 및 작곡가들의 생애 관련 한 자료 찾아 읽기)

3.1 1학년 : 독후감상 그리기 및 만들기 프로그램

1학년은 독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그러므로 요즘 어린이들은 '독후감 쓰기'를 지루해 하므로 본교에서는 3월초에 배포한 권장도서목록 중에서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책읽기를 꾸준히 지도하고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였다. 1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나왔다.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심청전과 같은 전래동화류와 아기곰 푸와 호랑이, 길 잃은 뱀비와 같은 디즈니의 명작 시리즈, 사과도둑 일라 일라 등과 같은 창작동화 그리고 이순신, 노벨 등과 같은 위인전, 과학동화와 철학, 종교류까지 다양한 독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2학년 : 그림보고 이야기 짓기 프로그램

2학년은 1년동안 학교 도서관을 열심히 이용하여 다양한 류의 도서를 읽도록 연중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므로 1학년보다는 독서 수준이 높고 독서도 꾸준히 하였으므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림보고 이야기 짓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사서교사가 4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어린이들은 그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어 하고 우왕좌왕 하더니 이내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그림의 내용은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의 정서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두 장으로

준비하였다. 한 장은 맑고 깨끗한 호수에 두명의 여자 어린이와 한 명의 남자 어린이가 풍선을 들고 호수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그림이었고, 다른 한 장은 호리병이 있고 그 옆에는 해골이 있는 동굴 앞에서 한 어린이가 칼을 차고 기대어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그림이었다. 만일 사서가 직접 그리기가 어렵다면 다른 교사에게 부탁을 해도 좋고 사진이나 달력 등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작품은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다양하게 나왔다. 어떤 어린이는 풍선을 타고 여행하는 글을 썼고 어떤 어린이는 호수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들과 환경오염에 대한 글을 썼다. 이렇게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므로 사서교사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3.3 3학년 : 음악 듣고 이야기 짓기, 그리기 프로그램

3학년은 중학년으로서 저학년과 고학년의 중간 수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음악을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지을 수 있도록 편집하여 들려 준 후에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음악은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천둥소리, 농악소리,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제1악장, 물소리, 새소리, 갈대소리, 파도소리 등을 녹음하였다. 글 보다는 그림으로 그린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여전히 글쓰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서교사는 앞으

로의 독서교육에 있어서 글쓰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4 4학년 : 서명으로 이야기 짓기 프로그램

4학년은 독서생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학년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논리력까지 갖춘 학년이다. 그러므로 ‘서명으로 이야기 짓기 프로그램’이라는 매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3월에 배포한 권장도서목록에 있는 서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어 보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우려를 하였으며 과연 이 프로그램으로 시상을 할 만한 작품이 나올 것인가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걱정과는 달리 의외의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 처음 실시한 프로그램이었기에 모든 4학년 어린이가 프로그램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기대 이상의 작품을 써 주었다. 어린이들에게는 무리한 프로그램이지만 어린이들이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독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억지로 독서를 권유해서 흥미를 잃게 하는 것보다는 서명을 나열해서 이야기를 짓다보면 재미있거나 독특한 서명을 보고 ‘과연 이 책은 무슨 내용일까’하는 궁금증을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독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권장도서목록에 나와 있는 서명을 모두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쓰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이 서명들은 시중

에 유통되고 있는 책들이며 담당 장학사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이 작품을 복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3.5 5학년 : 책 표지 만들기 프로그램

5학년은 독서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루해 하는 학년이다. 도서실에 와서 대출해 가는 빈도도 가장 낮고 독서에 대한 흥미가 가장 낮은 학년으로 생각되어 ‘책표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았다. 재료나 크기는 자유이며 “내가 책을 제작하는 사람이 되어 이 책의 표지를 이렇게 만들면 독자들이 흥미 있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기를 권장하였다. 도화지, 색지, 골판지, 수수깡 등의 다양한 재료로 물감, 색연필, 싸인펜, 포스터칼라 등으로 그리기 및 만들기를 하였다.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작은 호기심을 심어 줄 수 있었다.

3.6 6학년 : 책 내용으로 노래 가사 짓기 프로그램

6학년은 초등학교를 마감하고 중학생이 되는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독후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데 주안점을 ‘책 내용으로 노래가사 짓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6학년 모든 어린이들이 잘 아는 곡명을 주고 그 곡에 맞게 가사를 짓도록 하였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대중가요에다 우리나라의 고전 중에서 ‘홍부전, 전우치전, 한중록, 홍길동전’ 등의 내용으로 가사를 짓도록 하였다. 어린이들

이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고 많은 양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매우 흥미있어 하였다.

4. 결 론

오늘날의 교육은 과거의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으로 그 무게 중심이 확실하게 옮겨지고 있다. 독서교육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은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잃게 하고 있으며, 초를 다투며 변하는 화면에 빠져드는 학생들은 정지된 활자 속에서 흥미를 잃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요구에 알맞은 독서교육을 하려면 앞서 기술한 특정 주제 중심 프로그램, 각 교과과정 중심 프로그램, 저자 중심 프로그램, 지명이나 여행 중심 프로그램, 학교 생사 중심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적인 측면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다. 아마도 독서교육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학생들에게 시도하든지간에 학생들이 흥미 있게 잘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독서교육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 부 록 〉

◆◆ 다음은 4학년에서 실시한 ‘서명으로 이야기 짓기 프로그램’에 입상한 작품으로 밑줄 친 부분이 권장도서목록에 있는 서명이다.

제목: 아기 도깨비기 심심하데요.

똑똑 똑똑!

어서 잠에서 깨어나세요.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무지개 마을의 꾸러기 대장 아기 도깨비예요. 하얀 무지개가 걸려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집에서 살죠. 밤티마을의 큰돌이네 집과는 이웃이구요. 초록이네 가족의 작은 아씨들은 나를 애물단지 꼴단지라고 부르지요. 내가 말썽만 피워서 그렇다구요? 천만에요. 저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 예절교실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파브르 곤충기, 과학앨범 같은 책도 열심히 읽는 수준 높은 도깨비라구요.

똥보 학교의 똥똥보들은 신나게 대통령 자동차를 타고 박달나무를 타고 온 위대한 왕을 만나러 가고 내친구 호들이도 솔로몬왕의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는 말썽 좀 피웠다고 이렇게 눈속에서 삼개월 동안이나 벌을 받고 있대구요. 생각좀 해 보세요. 제가 ‘달’하고 ‘해’하고 자리를 좀 바꾸어 놓았다고 이런 심한 벌을 주시지 않겠어요! 밖에는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 데 방 안에서 룬비니 불교동화니 세계의 성인 이야기, 어린이 명상록같이 따분한 책이나 읽어야 한다니! 기억이와 니은이의 일기를 훑쳐보는 것도 하얀 돌맹이 일곱 개로 공기놀이 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티코와 황금날개를 타고 멋대로 가족은 지금 행복중인데……. 무엇보다도 신사임당, 이울곡,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공비가 나타났는데 지금이야말로 나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겠어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북한 사람들을 혼내주어야 하는데… 그대신 동지가 몇 명 필요해요. 산 속에 숨어있는 공비를 잡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개 한마리가 필요해요. 또 수박을 훔친 꼬마 토끼와 날고 싶어하는 고양이두요. 아! 령컨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중중 다음은 6학년에서 실시한 ‘책 내용으로 노래가사 짓기 프로그램’에 입상한 작품으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곡에 맞추어 가사를 쓴 것이다.

노래: 홍길동집

조선시대 초기에 우리를 위해 태어난 우리의 홍길동 의적 홍길동!
학문을 깨우치고 무술을 연마한 천재가 따로 없었네.

짐을 나와 검술과 도술 배운 홍길동 활빈당 이라는 도둑의 무리를 만들고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칠 혼내고 백성을 위했네.

서자출신 태생이라 벼슬은 못했지만 벼슬한 이보다 많은 일했고
더 많이 더욱더 백성을 위했던 정의의 홍길동!

홍길동은 가난한 사람 편에 섰고 나쁜이들은 뒤에서 무술로 혼내주고
우리들 가슴에 영원히 간직될 정의로운 의적이라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1,000여 단체회원과 1,5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2. 보내실곳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
전화 : (02)535-4868 FAX : (02)535-5616
PC통신 (나우누리) kla1 (하이텔)klanet
인터넷메일 klanet@hitel.net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도서관문화 편집실